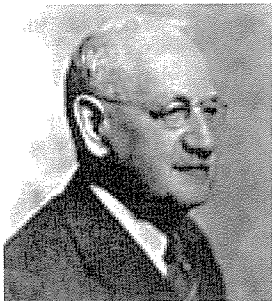


세브란스 醫專 설립한 캐나다 의사

에비슨 (1860~1956년)

朴 星 來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파학사>



세브란스 설립자 올리버 알 에비슨(1860~1956년)

한국 의학사에서 가장 뚜렷한 이름으로 남을 인물 하나로 에비슨을 꼽을 수 있다. 이광린(李光麟)교수는 10년 전에 이미 그의 생애를 한권의 책으로 낸 일도 있다. (이광린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 연

세대 출판부, 1992.) 사료의 수집과 정리에 언제나 각별했던 이교수는 이 책을 쓰면서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에비슨의 연고지를 찾고 미국과 캐나다 여러 곳을 뒤지기도 했다는 것을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언더우드와 인연 ... 1893년 부산에

지금 연세대 의대의 전신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설립자이며 초대 교장이던 에비슨(Oliver R. Avison·1860~1956년·한국이름 : 魚丕信)은 원래 영국 출생이었지만, 1866년 6살 때 일가가 캐나다로 이민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라서 초등학교 교사로 청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더 공부하여 대학 교수가 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한 에비슨은 대학으로 진학해 공부를 계속했다. 그는 캐나다의 토론토대학에서 약학을 공부한데 이어 의과 대학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어 모교의 교수가 되었다. 에비슨은 1885년 7월에는 제니 반스와 결혼하여 곧 아이들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 교수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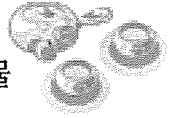
갑자기 1893년 6월 16일 부산에 도착하여 그 후 40년 동안 이 땅에서 의료활동에 종사했던 것이다.

그가 조선에 오게 된 동기는 토론토를 방문했던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년 한국이름 : 元杜尤)의 자극을 받아서였다고 알려져 있다. 일찍이 조선에 와서 선교와 교육 활동을 하고 있던 언더우드는 조선에서의 선교 및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선전했고, 이에 감동한 청년 의사 에비슨이 조선에 오기를 희망했고 그 뜻을 언더우드에게 전했던 것이다. 그의 뜻을 들은 언더우드는 조선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선교 본부에 에비슨을 추천했고, 그 결과 에비슨은 갑자기 조선에 올 수 있게 되었던 셈이다. 이렇게 조선에 온 에비슨은 그를 오게 만든 언더우드와 함께 오늘날의 연세대를 설립하게 된 셈이다. 오늘날 연대가 학교 전체의 창시자로 언더우드를 꼽고, 연대 의과대 창시자로 에비슨을 꼽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원래 이 땅에 서양식 의학이 자리잡게 된 것은



완공된 세브란스병원 (1904년)



연세대 의대 전신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설립자이며 초대 교장이던 올리버 알 에비슨.
영국 태생으로 6세때 캐나다로 이주하여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에비슨은
토론토를 방문했던 언더우드와 인연이 되어 1893년 한국에 와서
알렌이 세운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濟衆院)의 운영을 맡으면서
미국의 부호 세브란스의 후원으로 세브란스병원을 열고
의학전문학교를 세워 이 땅에 서양의사를 길러낸 것이다.

1884년 갑신정변이 중대한 고비가 된다. 그 날 칼에 맞아 7군데 크게 상처를 입은 민비의 조카 민영익(閔泳翊)은 때마침 미국 영사관에 와 있던 미국 의사 알렌(Horace N. Allen·1858~1932년 한국이름 : 安連)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그 덕분에 알렌은 1885년 이 나라에 처음으로 서양식 병원으로 제중원(濟衆院 : 첫 이름은 廣惠院)을 차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전통의료 밖에 모르던 조선 사람들에게 서양식 의료의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한 중대한 공은 있지만, 본격적인 의학 교육기관으로 까지 발전되기는 어려웠다. 우선 재정 형편이 말이 아니었던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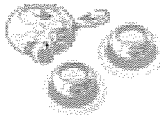
미국의 부호 세브란스 후원발아

바로 이 부분에서 알렌에 이어 1893년 11월부터 제중원을 책임맡은 에비슨은 놀라운 성공을 하게 된다. 원래 제중원은 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시작했지만, 그 후 지금의 을지로 1가로 옮겨 있었다. 1884년 갑신정변에 가담하여 집안이 망하게 된 홍영식(洪英植)의 집을 정부에서 얻어 병원으로 쓰게된 것이었다. 에비슨이 책임을 맡았던 초기까지는 이 병원은 조선 정부가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만성적 재정문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던 병원은 이듬해 아예 미국 선교사들이 운영을 맡게 되고, 정식으로 에비슨이 책임자가 된 것이다.

그로부터 꼭 10년 동안 에비슨은 제중원을 운영해 이 땅의 근대의학 건설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다가 1904년 제중원은 사라지고, 그 대신 세브란스병원이

태어났다. 1902년 선교부가 구입한 남대문 밖의 땅에 건물짓기가 시작되었고, 그 건물이 1904년 현대식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병원 건설을 위해 돈을 모으러 미국에 갔던 에비슨은 1899년 미국 클리블랜드시의 부자이며 자선가인 세브란스(Louis Henry Severance·1838~1913년)의 기부금 1만5천달러를 얻게 된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금액이었고, 이 돈 때문에 에비슨은 1904년 병원을 신축하고 의학 교육기관을 확정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세브란스병원'이며,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이다. 지금까지 연세대 부속 병원을 '세브란스'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1907년 세브란스는 자신의 개인 의사 러들러(A. I. Ludlow)를 데리고 조선을 방문하여 그의 이름이 붙은 병원을 찾았으며, 다시 3만달러를 증여했다. 그 후 이 때 따라왔던 러들러는 1911년 의료선교사로 내한하여 세브란스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1913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그 아들과 딸이 세브란스를 지원했다. 아들 존 세브란스와 딸 프렌티스여사가 1939년까지 지원한 돈은 20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1927년 세브란스 증축 때에만도 10만달러를 지원했다.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 대주주였던 세브란스는 대단한 부자가 되어 많은 기관과 대학 등에 막대한 지원금을 냈고, 그 흔적이 지금도 고향 클리블랜드는 물론 그 일대에 여러 모습으로 남아 있다. 지원을 받은 대학 여러 곳에는 그의 이름을 딴 건물이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막상 그를 기념하는 책 한권도 나온 일이 없는 듯하다.



일제시대를 통해 세브란스병원은 가장 훌륭한 의료시설이었고, 또 가장 중요한 의학 교육 기관이었다. 물론 일본 식민지 정부가 세운 의학교와 의료기관도 점점 충실해졌다. 세브란스가 처음 제대로 훈련받은 의사를 졸업시킨 것은 1908년 6월 3일이었는데, 7명이 졸업했다. 김필순(金弼淳), 신창희(申昌熙), 김희영(金熙榮), 홍종은(洪鍾殷), 홍석후(洪錫厚), 주현직(朱賢則), 박서양(朴瑞陽) 등 7명이다. 이들 가운데 특히 김필순과 홍석후가 에비슨을 도와 의학책 번역에 힘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필순(1878~1919년)은 105인사건 이후 만주로 피하여 의사 노릇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도왔고, 홍석후는 한국 최초의 안과 전문의가 되어 세브란스의학교의 안과 교수가 되었다. 1934년 에비슨이 세브란스를 사임할 때까지 세브란스 졸업생은 3백52명이 되었다.

1934년까지 의료인 3백52명 양성

1898년에 에비슨은 조수들을 데리고 의학책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번역된 교재를 가지고 1901년에는 제대로 의학 교육을 시작했다. 당시 제중원의 책임자로서 에비슨이 가장 먼저 번역한 책은 그레이(H. Gray)의 「Anatomy」(인체해부학)으로 1899년에 발간되었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지금 알려져 있는 의학 교재는 32종 정도로 남아있는 것은 「약물학」, 「화학」, 「해부학」, 「생리교과서」, 「진단학」, 「산과학」, 「외과학」 등 10종 정도다. 이 번역에 실질적 주역을 담당한 김필순, 홍석후 등은 10여년 뒤에서야 세브란스 제1회 졸업생이 된 것이다.

또 1916년부터 연희전문학교 교장도 겸임하던 에비슨은 1934년 은퇴하면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 자리는 오궁선(吳毓善)에게, 연희전문 교장은 언더우드 2세 즉 원한경(元漢慶)에게 넘겨주었다. 75세가 되던 1935년 12월 2일 미국으로 돌아간 에비슨은 1940년 80회 생일을 맞아서는 한국 생활을 회고하는 글 「한국 생활의 회고」(Memoirs of Life in



1917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직원 일동 - 앞줄의 한가운데가 에비슨

Korea)을 길게 남기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舊韓未秘錄」 2권(대구대학교 출판부, 1984)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다.

부인은 그들이 미국으로 은퇴한 이듬해 1936년 미국에서 별세하여 캐나다에 묻혔고, 76세의 에비슨은 재혼해 20년을 더 살다가 1956년 8월 28일 미국 플로리다주 피터스버그에서 96세로 세상을 떠나 부인 곁으로 돌아갔다. 그들 사이에서는 아들 일곱과 딸 셋 등 자녀 10명이 태어났는데, 3남 고든은 의사가 되어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약하기도 하고 1924년 광주 기독교청년회 농업 확장 일을 하다가 귀국했고, 첫 딸 리라도 한국에서 3년 일하다가 미국으로 가 결혼했다. 4남 더글라스(1893~1952년)는 세브란스 소아과 교수, 병원장, 부교장을 역임한 다음 1952년 전쟁 중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죽어 화장했는데, 1953년 세브란스 학교장으로 다시 장례식을 하고 서울의 양화진 외인 묘지에 안장했다.

에비슨의 동상은 지금 연세대에 세워져 있다. 원래 그의 동상은 일제 시기 1928년 3월에 졸업생들에 의해 병실 남쪽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1943년 그 동상은 일제가 전쟁에 필요한 대포와 총탄을 만든다 하여 징발되어 사라졌고, 동상대만 서 있었다. 지금은 장소가 바뀌어 원래의 세브란스 터인 남대문 근처가 아니라 신촌의 연대 의대 동북쪽에 그의 동상이 건립되어 있는데, 1966년 6월 다시 세운 것이다. ⑤7